

쫄깃쫄깃 꼬막 맛보고 태백산맥 문학기행

28일부터 3일간 진석리 갯벌 체험장서 별교 꼬막축제
꼬막 비빔밥 만들기·빨배 타기 등 다채로운 체험행사

가을 남도의 대표축제인 '별교꼬막축제'가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별교읍 전변과 진석리 갯벌 체험장 일원에서 열린다.

올해로 15번째를 맞는 이번 축제는 별교꼬막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 선승규)가 주관하며, '꼬막 맛과 함께하는 소설 태백산맥의 무대 별교'를 주제로 별교읍민의 화합을 다지는 읍민의 날 행사와 함께 진행된다.

특히 올해 축제는 관광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행사를 대폭 강화했으며, 소설 태백산맥을 알리는 문학기행 등 먹고, 보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관광객의 만족도를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축제 첫째 날인 28일에는 보성군 국악협회의 시가행진을 시작으로 대형 꼬막화합 비빔밥 만들기, 나철선생 심포지엄, 단체출발기 대회, 꼬막노래자랑, 전설 불꽃쇼 등 다양한 행사를 즐길 수 있다.

둘째 날인 29일에는 지역동아리공연, 재동선 합창단 공연, 꼬막던지기, 꼬막무게 맞추기, 꼬막끼기경연 등을 비롯한 태백산맥 문학기행 퀴즈, 바퀴달린 날배타기 대회 등 체험행사가 준비돼 있다. 특히 이날 오후 5시부터는 보성별교 개막공연을 시작으로 읍민의 날 행사와 함께 불꽃쇼, 유명 연예인들이 출연하는 축하공연이 화려하게 열릴 예정이다.



축제 마지막 날인 30일에는 별교읍민의 화합을 다지는 '별교! 별교! 그리고 어울제'가 펼쳐지며, 꼬막 요리공연과 꼬막 무료 이벤트, 청소년 k-pop 댄스 경연대

회, 불꽃쇼를 즐길 수 있다. 또 진석리 갯벌에서는 갯벌허리줄다리기, 꼬막잡기, 날배타기 등 갯벌체험 행사가 진행된다.

전해의 여자인 정정갯벌에서 채취한 별교꼬막은 수산물 지리적표시 전국 1호로, 해모글로빈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노약자나 산모, 어린이 성장발육촉진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대하소설 '태백산맥' 덕분에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별교꼬막은 문학기행 등 별교를 찾는 관광객에게 빼놓을 수 없는 먹을거리로 자리매김했으며, 최근 제철을 맞은 별교 꼬막의 쫄깃한 육질을 맛보려는 전국 미식가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선승규 별교꼬막축제추진위원장은 "이번 축제를 통해 군민 화합을 다지고 별교 꼬막을 널리 홍보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수입 증대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별교=김윤성기자 kim0686@

보성군 가을 여행주간 구 별교금융조합 개방

노후 시설 복원공사 마무리

보성군은 24일 "이날부터 문화체육관광부 2016 가을 여행주간을 맞아 별교금융조합(사진)을 개방 운영한다"고 밝혔다.

별교금융조합은 지난 2005년 제226호의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근현대식 르네상스 양식의 건축물로 일제강점기 소설 태백산맥 속 무대다.

지난 1918년부터 금융시설로 사용하다가 1926년 농촌지도소 별교지소, 별교지역농민상담소 등으로 활용돼 왔다.

하지만 보성군은 시설 노후화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2013년부터 건축물의 훼손부분과 누수, 오염 등을 대대적으로 복원하는 공사를 진행해 왔으며, 최근 '한국의 화폐사'를 주제로 한 전시 및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마무리했다.

보성군은 또 소설 속 인물들의 의복을 제작해 '소설 태백산맥 등장인물 되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관광객들에게 풍성한 체험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관람은 무료이며, 문의는 전화(061-850-5207)로 하면 된다. /별교=김윤성기자 kim0686@



고흥군 유자·석류특구 전국 최우수 지역특구 선정 포상금 1억5000만원 받아

고흥지역 웰빙 유자와 석류 특구가 전국 최우수 지역특구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고흥 유자·석류의 수출시장 확대와 건강기능성 식품소재 사업영역 확대 등 유자석류산업 발전에 탄력을 받게 됐다.

24일 고흥군에 따르면 지난 20일 경주시 화백 컨벤션센터에서 중소기업청이 진행한 2016년 지역특화발전특구 합동 연찬회에서 고흥 웰빙유자·석류 특구가 전국 최우수 지역특구로 선정돼 대통령상과 함께 포상금 1억5000만원을 받았다. <사진>

고흥 웰빙유자·석류특구는 전국 160개 지역특화발전특구를 대상으로 현장·전문가·정책평가 등 3단계 운영성과 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고흥군은 유자·석류 국내 최대 생산지로 지난 2014년 특구지정에 힘입어 전라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로 지역산업의 혁신을 이끌어 오고 있다.

특히 고흥유자의 해외 수출능력과 유자·석류의 기능성 효능 과학적 검증, 농촌융복합 6차산업 인증 확대 노력 등 지자체의 발빠른 행정적 노력 등이 전국 최우수 특구로 선정되는 데 큰 힘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흥군 관계자는 "전국 최우수 지역특구로 선정된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지역특구로 발전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고흥=주자중기자 gju@



곡성을 보행환경개선사업 국비 7억 확보

국민안전처 공모사업 선정...6개 노선 도로 정비

곡성군은 "지난 21일 국민안전처에서 주관한 '2017년 안전한 보행환경조성 공모사업'에 '곡성읍 시가지 보행환경개선사업'이 최종 선정돼 국비 7억원을 지원받는다"고 24일 밝혔다.

국민안전처에서는 시·도별로 2개의 사업지구를 추천받아 1차로 서면평가와 현장실사를 거친 뒤 2차 사업계획 발표 심사를 통해 대상지를 최종 확정한다.

곡성읍 시가지는 관공서와 터미널, 시장, 상가 등 다중이용시설이 밀집된 상업지역으로, 주민들의 무단횡단과 불법주정차에 따른 교통사고가 빈번한 곳이다. 지난 4월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

됐으며, 이번 사업을 통해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거리로 거듭나게 됐다.

사업구간은 곡성읍 중심부인 군청로를 포함한 6개 노선 1.5km(군청~터미널, 군청 사거리~정석진의원, 문화센터 로터리~터미널 등)로 단절되고 좁은 보도를 정비하고 교차로 등을 설치하게 된다.

곡성군 관계자는 "이번 공모사업으로 보행자 안전성 확보와 주요 시가지 경관 개선을 통해 섬진강기차마을과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곡성읍으로 유인해 체재하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곡성=김계중기자 kjkim@

곡성 문화행사 2제

서울발레단 '호두까기 인형' 공연

내일 동악아트홀서 '문화가 있는 날' 행사

곡성군은 "26일 곡성레저문화센터 동악아트홀에서 서울발레단의 '호두까기인형'이 열린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공연은 세계 최고 수준의 러시아 무용수들이 박진감 넘치는 연기를 선사하고, 웅장하고 인상적인 무대세트와 화려하고 독특한 의상, 소품 등을 통해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연은 오후 7시부터 시작되며, 무료 관람이다. 공연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관광문화과 문화예술팀(061-

360-8362)으로 연락하면 된다.

곡성군 관계자는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로 가족·친구들과 함께 문화 활동을 통해 잠시 여유를 가져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발레단은 기획테마공연으로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공연, 오페라발레공연, 뮤지컬발레공연, 타 장르예술과 함께하는 공연, 청소년을 위한 해설이 있는 발레공연 등 다양한 공연기획을 선보이고 있다.

/곡성=김계중기자 kjkim@

군민과 함께하는 솜사탕 음악회

곡성문화예술단 31일 곡성레저문화센터

10월 마지막 날 곡성에서 군민과 함께하는 음악회가 열린다.

곡성문화예술단이 주최한 이번 '솜사탕 음악회'는 지역 예술인과 전문 예술인이 함께 참여해 무대를 꾸미게 되며, 오는 31일 오후 7시 곡성레저문화센터에서 개최된다.

공연관람은 무료이며, 공연 문외는 곡성문화예술단 사무국(010-2273-8010)이나 곡성군 문화관광과로 연락하면 된다.

한편 '솜사탕 음악회'는 지난 2014년

부터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예술 공연으로 지역민과 예술인이 재능기부를 통해 함께 만들어 가고 있다.

사단법인 곡성문화예술단은 농촌 지역에서 문화전파와 행복충전을 위해 매월 음악회와 봉사활동을 전개하는 전문 문화예술단체이며, 지난 9월 5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고 공연과 융합임대 사업 등을 통해 혼합형 사회적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

/곡성=김계중기자 kjkim@

대단위 APT 밀집지역

근린상가

- 광주 서구 금호동 243-6번지 서광병원 맞은편 4거리 코너
- 7층 건물 중 701호 (7층 전체) 130평 (실형 89평)
- 대형주차장, 4면유리, 전망최고
- 감정 / 시세 - 7억
- 매매 - 5억 6천만원
- 용자 - 4억 2500만원
- 보 5천만원에 월세 200만원 보장
- 주인직매 H. 010-3605-5000

강력 추천!!

호텔급 대형 모텔

- 전남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32-1번지 지리산 온천지구 내 송원리조트 앞
- 대지 573평 건물 719평 객실 58개
- 시세 / 감평가 - 15억
- 경매로 7억 3000만원에 낙찰
- 용 7억 3000만원만 있음, 법인체 인수 가능
- 현재 리모델링 공사 준비중 (공사비 4억 예상)
- 리모델링 후 20억 이상 매매 가능
- 소유자 H. 010-3605-5000
- 매매 - 협의

토지, 6000평

- 전남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30-47번지 외 13필지 / 담양댐 하루 바로 옆
- 토지 6000평 / 계획관리지역
- 시세 - 33억원
- 매매 - 협의
- 관광특구로 관광자금 유치 가능
- 담양온천 1분 거리
- 전원주택 오토캠핑장 펜션 가든 온천 호텔 등등 모든업종 가능
- 개발 후 70억 이상 가치 있음
- 주인직매 H. 010-3605-5000

경매투자

- ▶비법 배우실 분! 특수물건만 취급 교육비 등 1200만원
- ▶사무실 같이 쓰실 분!
- ▶투자 하실 분! 공동 투자 가능 연 20% 수익 보장

(주)오천경매
H. 010-3605-5000